

고구려대학교 2016학년도 입학식 거행

입학식, 3월 2일 오전 11시 본교 대강당에서 거행



고구려대학교는 3월 2일 오전 11시 본교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입학식에는 학교법인 아신학원 고영을 이사장, 이석남 이사, 김형배 총장을 비롯하여 임성환 나주시의회 의원, 김종우 동문회장 등 내외 귀빈과 보직교수, 신입생,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치위생과 등 17개학과

주야간 총 1020여명이 입학하였으며, 개식사를 시작으로 김재근 교무기획처장의 학사보고, 김형배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장학증서 수여, 환영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입학선서는 신입생을 대표해 치위생과 이소망 학생(19)이 "학칙을 준수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인류사회에 봉사하고 산업사회 건설에 기

야할 중견전문인이 되기 위하여 학문과 기술의 연마에 정진할 것"을 선서했다. 김형배 총장은 "우리대학은 고구려대학교비전 2020을 선포하고 『대학특성화, 교육차별화(NCS), 교육환경개선, 핵심역량강화, 행·재정효율성 제고, 대학SQ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 교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을 아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입생들에게 "학생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며 여러분을 동반자로서 도와 줄 것이다."며 "학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창의적이고 봉사하는 전문직업인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날 입학식 행사 후 신입생들은 각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강수민기자

고구려대학교 제20회 학위수여식

학위수여식 2월 12일 오전 11시대강당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2월 12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제20회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제20회 학위수여식에는 고영을 이사장, 김형배 총장을 비롯한 양재승 해남부군수, 김오재 나주시 총무국장, 이민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성환 나주시의회 의원, 임경렬 나주문화원장, 유길원 초록우산 나주마을 소장, 김장훈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박성철 한국전력공사 나주시지사, 이계익 다시농협 조합장

등 내·외 귀빈과 교직원, 졸업생,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학위수여식은 유아교육과 최영순양의 799명에 대한 학위증서 수여와 상장수여, 김형배 총장의 회고사, 고영을 이사장, 김오재 총무국장, 임성환 나주시의회 의원의 축사로 진행됐다.

사회복지과 김미정양이 최우수상을 사회복지상담과 임현화양 외 17명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강수민 기자

고구려대학교제 21회 대동제

2016년 4월 30일과 5월 1일 토요일에 고구려대학교 대동제를 하였다.

첫째날 4월 30일 총학생회는 10시~11시에 행사장 도착 및 준비를 하였고, 11시부터 1시는 출범식 및 대동축제로 축하공연 맞이하여 공

연예술 복지학부 김영자 교수님께서 참여하셨고 총장님의 인사말과 학생회 댄스 학교관련된 퀴즈 및 미니게임 5종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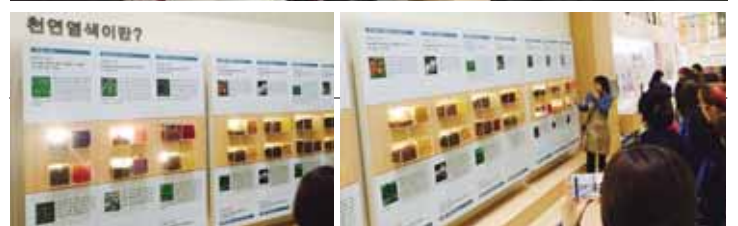
5시까지는 행사부스를 운영하여 치위생과 1,2,3학년 구강보건교육으로 충치예방, 올바른 칫솔질 교

육, 어르신 의치관리, 구강위생 관리에 도모하였으며 곤충산업 안내 및 식용곤충 시식,총학생회 사회봉사단내외 귀빈 및 행사장 안내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정리를 하고 첫째날은 축제를 끝마쳤다.

이로서 둘째날도 같은 일정과 시간으로 진행하여 고구려대학교 제21회 대동제는 끝마쳤다.

/강수민기자

“2016학년도 고구려대학교 MT”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12시 40분에 치위생과 1,2,3학년 기숙사로 비로 집합하여 다과시간을 가지고 난후 1시에 버스를 이용하여 나주 천연염색관으로 이동하여 3시 30분까지 천연염색체험하였다.

천연염색과정의 동영상과 전시

물을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손수건의 기념품을 남기고왔다.

그리고 3시 30분부터 4시30분까지 기숙사에 휴식과 5시에 고구려대학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MT일정을 끝마쳤다. /강수민기자



'6차 산업을 선도하는 곤충산업 인력양성 세미나' 개최

곤충산업 인력양성 세미나에는 산업 연구개발 성과 및 전망, 벼 메뚜기 연중사육기술과 이용(곤충잡업연구소 강성주 연구사), 산업곤충 자원성과 조건 및 글로벌 곤충시장 동향 (인섹트바이오 송현식 대표)이 발표됐다.

곤충산업 인력양성 세미나에는 강인규 나주시장과 홍철식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 곤충산업협회 회원 및 곤충 사육농가, 곤충산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곤충산업 인력양성 세미나는 6차 곤충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어 향후 지역사회 발전 동력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전남곤충산업협회 및 산업체(전남곤충산업협회, (주)한국유용곤충연구소, (주)인섹트바이오, (주)녹색곤충, (주)B.T BIO)와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관련 학생들에게 실무 기반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김형배 총장은 "곤충의 고단백질 성분으로 미래식량 활용, 신소

재물질 추출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각종 사료 상품화로 곤충산업화를 선도하는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할 것이다"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곤충산업과 함께 6차 산업의 선도주자로 성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수민기자



"함께 해 봐요 잼잼잼잼 집계집계"

고구려대, 영광노인전문요양원 봉사



고구려대학교(www.kgrc.ac.kr) 평생교육복지과 학생들이 지난 달 31일 영광노인전문요양원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가졌다.

봉사에 나선 1·2학년 30여 명의 학생들은 영광전문요양원 시설의 현황을 먼저 소개받고 입소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어르신들의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별 봉사활동을 가졌다.

학생들은 재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물리재활치료 보조와 함께 손·발 마사지 등 소근육 운동도 함께하며 잠시나마 말벗이 돼 그들을 위로했다. 또한 입소자의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 등에 질문하며 실천처럼 봉사하려는 모습도 보여줬다.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는 근본적

으로 '섬김'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으로써 봉사도 실천처럼 활동하는 모습은 앞으로 복지분야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됐다는 평이다.

고구려대학교 평생교육복지과(학생대표; 하미선, 정주영)는 학생들에게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학생들의 진로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가능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 평생교육복지과는 '생수의 집' 봉사활동 등 수차례에 걸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날 학생들은 영광노인전문요양원 봉사활동을 끝내고 영광 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해 영광 지역 청소년들에게 서비스 되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고구려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활동



▲ 고구려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전남 나주의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가 전남장애인복지관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고구려대 나눔천사 동아리 학생들은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마다 장애인복지관내 주간보호센터를 찾아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배움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눔천사 동아리 학생들은 만다라 등 여러 색채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미술교육, 미적 감각과 성취감을 느

고구려대학교, 글로벌 봉사 대학 '자리매김'

한국·캄보디아글로벌봉사 통해 '하나로'



▲ 다문화복지과, 캄보디아 시엠림 난민촌 방문 봉사활동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가 글로벌 봉사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고구려대학교는 다문화복지과 교수, 학생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봉사단을 구성,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약 5일간 글로벌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글로벌 봉사단은 캄보디아 시엠림 다일 공동체·고아원, 로렌삼 수상가옥 난민촌을 방문하여 급식 나눔 일손돕기, 쌀과 물 등 생필품을 기증하는 등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글로벌 봉사 참가자들은 자비를 들여 크레파스, 노트를 구입

해 오는 등 훈훈한 온정나눔으로 눈길을 끌었다.

다문화복지과 학과장 박종채 교수는 "작은 정성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으로 그리고 큰 희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우리의 작은 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구려대학교는 지역사회와 세계인류를 선도하는 전문인을 육성한다는 설립이념아래 학생들의 개인역량 향상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매학기 글로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격유형검사로 진정한 나를 찾아요"

고구려대학교, MBTI 성격유형검사 실시

고구려대학교의 직업상담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구려대학교는 지난 21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실시했다.

MBTI 검사는 C.G.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Katharine Cook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보다 쉽고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검사이다. 특히, 네 가지 성격지표에 의해 16가지 성격유형을 찾아내 저마다 어떤 심리적 선호도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검사에 참여한 학생은 "나도 잘 몰랐던 나의 심리를 이번 검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며 "나의 유형에 맞는 동기부여 방법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구려대학교는 멘토링 프로그램, 상담센터활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적성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조희재 기자

고구려대학교신문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 김형배 편집인 | 겸 주간 | 강철수
인쇄인 | 특영환 편집장 | 강수민
대표전화 | 061-330-7431
E-mail | cskang@kgrc.ac.kr

기사제보 및 광고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본관 409호실 고구려대학교신문사

사 설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은 언론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역 언론의 경우는 환경변화에 이종으로 영향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지역 언론의 현 주소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제각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의 정치화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이 기능을 앞세워 정치화하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는 다수의 대중들에게 특히 수용자와 시·청취자들에게 괴로움을

누적시키고 있다. 언론기능을 왜곡시키고 발전을 저해할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 발전의 방향을 왜곡시켜버리는 주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언론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보도하고 이를 이슈화 한다면 스스로 다양성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한 언론을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론 본연의 기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여론이 형성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의견들이 제시되고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가 사라지고 단선적인 방향에서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왜곡된 이슈화이고 편향된 기능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기에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안고 있는 지역 언론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언론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성을 강조해온 것이 사

실이다. 지역성은 다의적이라 발전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성만을 가지고 이중고를 안고 있는 지역 언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에는 보강하여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다양성이라는 키워드이다. 다양성은 쉽게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보여 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발전의 방향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유연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에 적합한 기능이다. 유연함은 외부 환

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여러 가지 발전의 대안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 언론의 현 환경을 극복하고 발전의 대안으로 모색해야 할 방향은 바로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기능할 수 있는 지역 언론은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언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은 다양성을 키우는데 있다. 이는 발전과 민주주의 실천의 기반이 될 것이다.

학/과/특/집 ▶ 치위생과

“제 50회 WEDEX 2015”



전시회 일정 | 기자재전시회 : 10월 24일(토)~25일(일) 2일간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오스팀입플라트 23~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WEDEX 2015'에 고구려대학교 치위생과 1,2학년 제50회 대한치과의사협

회·호남·충청 공동 국제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WeDEX 2015 행사로 다녀왔다. 10시 20분에 모여 인원 파악 후, 오스팀관련 기구와 재료를 보고 12

시 30분에 모여 학과학년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가진 후 3시에 기숙사로 돌아왔다.

전시품목은 유니트체어 및 진료용 관련장비, 방사선 진단기기, 레이저기기, 진료용기구, 진료용재료, 임플란트기재, 교정기재, 각 치과용약품류, 치과용용품 등 있었다.

참가비는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학교의 행사를 기회로 치과관련제품을 직접 체험과 천연비누만들기, 치과재료샘플을 얻을 수 있었으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좋은 시간을 보낸 기억이 남는다.



가습기살균제사건

치위생과 강수민

1994년 11월 16일 '유공현 SK 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판매하기 시작했다.

가습기의 세균번식 우려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의 물건이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가습기 살균제를 내놓기 시작했고 2000~2011년경에는 약20종의 가습기 살균제가 연간 60만개 정도 팔려나갔다.

2002년 3월 은평구에 사는 박모씨의 딸은 갑자기 호흡에 불편을 느껴 원인불명으로 그해 6월 세상을 떠났다. 이질환은 처음엔 감기와 같은 증상이었으며 약을 먹어도 회복되지 않고 폐가 점점 굳어 손을 쓸수도 없이 죽어갔다.

계속해서 비슷한 증상으로 아이들이 사망하자 교수들이 대한소아과학회에 논문을 통해 보고하였다.

병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발병 케이스를 조사한 결과 7월까지 사

망자는 36명, 평균 발병 나이는 26개월이었다. 이러한 경고에 질병관리본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당시까지만 해도 소아사이에만 만연한 병인줄만 알았다.

그러다 질병관리본부는 드디어 원인을 찾게 되는데 "가습기 살균제 위험요인 추정"은 가습기 살균제에 첨가된 폴리헥사메틸레구아니딘 라는 성분이 코로 흡입되면서 폐에 치명상을 입힌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동물시험은 이어졌고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6종의 제품들을 수거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소송과 시위뿐이었다.

국가도 기업도 서로 떠넘기기 바빴고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국가든 정부든 국민에게 책임과 보상을 당연히 해주어야하며 안전한 제품과 생산을 해야하는 것이 국가에 책임의 무라고 생각한다.

고구려대학교 치위생과 '제 12회 예비 치과위생사' 선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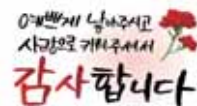
고구려대 치위생과는 2016년 03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본관 5층 대강당에서 1,3학년 학생 30여명을 비롯해 치위생과 지도교수 등 참석하여 '제12회 예비 치과위생사 선서식'을 개최하였다.

치위생과 학과장 김기영 교수가 2학년 학생들에게 핀 수여를 시작으로 촛불의식, 선서문 낭독, 축사,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서식에서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나가



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했다. /조희재기자

어버이날 선물 순위는?



도적이었고 이어 친필 편지 18%, 효도 관광 14%, 가전제품 8%, 공연·영화 티켓 4% 등의 순이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물순위는 다양한데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50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에 대해 조사한 설문지를 본 결과물이다. 56%가 현금을 꼽아 압

반면 어버이날 선물의 상징인 '카네이션'을 선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을 묻는 질문에는 '드릴 수만 있다면 전교 1등 성적표' 51%, '직접 쓴 편지' 23%, '용돈을 모아 준비한 선물' 14%, '카네이션' 12%, 순이었다.

한편 자녀들은 '가정의 달'인 5월 중 '어버이날'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강수민 기자

고구려대학교 치위생과 학술제

'제11회 치위생과 구강보건 학술제'를 개최했다. 11월 18일 (수)에 고구려대학교 치위생과 악어새와 송곳니의 학술제에 대한 행사개별했다.

오후 2시에 행사가 시작되어 학과장교수님과 치위생과 교수님들 및 총장님이 참석하여 치위생과

13학년들이 한달 전부터 준비하던 학술제를 2학년 각 연극 및 논문행사에 대해 경청하여 행사에 참여하였다.

학술제는 △노인구강관리에 대한 내용의 연극 '백설공주'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 논문 발표 △올바

른 양치습관을 강조한 인형극 '은지와 친구들', 연극 '연주의 꿈' △'치과 의료서비스와 고객만족에 미치는 요인' 논문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양한 구강보건교육매체와 다과와 마지막으로 사진 찍는 시간을 가지며 치위생과 생들의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4시에 모든 행사를 끝마쳤다. /강수민기자

| 새책소개 |

그래픽소설로 읽는 협동조합 역사기행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펜익위버로 기록된다. 하지만 성공적인 모델로 기억되는 로치데일 공정선거자 조합은 75년 뒤인 1844년에 탄생하였다.

협동조합 역사에서 로버트 오언과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를 빼놓을 수 없듯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 책은 영국 협동조합그룹(The Co-operative Group)이 그래픽 소설 형식을 빌려 쓴 것으로 전 세계 협동조합 역사를 조망하고 있다.

영국 협동조합그룹은 150여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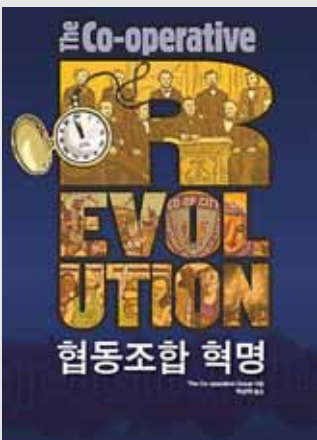
지금 까지도 로치데일 공정선거자 협동조합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협동조합그룹은 식품, 소매, 금융 서비스, 장례식 및 농장 등에 조합원 수가 810만 명, 직원 수는 9만 명, 회원생협만 무려 127개인 영국 최대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다.

이들이 최근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협동조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그래픽 소설이었다.

그래픽소설(Graphic Novel)이란 문학작품처럼 깊이 있고 예술성 넘치는 작가주의 만화를 일컫는 말이다.

기존 코믹스에선 보기 힘든 깊이를 추구하며 예술적 실험성이 두드러지는 게 특징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픽 소설, 문에 만화라고도 한다. 그래픽소설은 만화의 형식을 빌리지만 소설처럼 길고 복잡한 스토



협동조합 혁명

The Co-operative Group 지음, 박상 하 옮김
발행일: 2016년 1월 5일
출판사: (주)그마프레스
ISBN 978-89-6866-640-7

리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 책도 70쪽 분량이지만 수백년 동안 이어져온 협동조합의 변천과 확산과정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마치 웅장한 뮤지컬드라마나 멋진 고전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협동조합이 즐겁고 행복한 상상의 날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의 구성은 시계열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졌다.

과거에는 홀리요크를 통해 로치데일협동조합 선구자들과 산업혁명기의 시대적 상황을 그리고 있다.

현재에는 협동조합이 전 세계에 140만개로 성장하고 조합원 10억 명에 1억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미래는 로치데일 공정선거자 협동조합 설립이후 200년이 되는 2044년에는 협동조합이 자체 개발한 화성탐사선을 발사할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상상하게 만든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협동현상에 있다.

새와 꿀벌들과 같은 동식물들이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협동하는지를 과학적 증거와 이론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배울 점은 자본주의에서 경쟁이 미덕이라면 협동은 신뢰이며 아름다운 가치라는 것이다.

/ 강수민기자

베스트 셀러

완벽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랑

<헤민 지음/이웅건 그림/수오서제>



헤민 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후 4년 만에 신작 『완벽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랑』로 돌아왔다.

이 책에는 완벽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한 나 자신과 가족, 친구, 동료,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리 인에는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자비한 시선도 함께 있음을 일깨워주며 마치 엄마가 내 아이를 지켜보는 사랑의 눈빛으로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본성을 깨치도록 도와준다.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길로 안내하는 헤민 스님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지음 | 전경아 옮김 | 김정운 감수 | 인플루엔셜>

심리학 제3의 거장 '아들러', 용기의 심리학을 이야기하다!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일본의 1인자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가 후미타케의 저서로, 아들러의 심리학을 '대화체'로 쉽고 맛깔나게 정리하고 있다.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한 철학자와 세상에 부정적이고 열등감 많은 청년이 다섯 번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양윤옥 옮김/현대문학>



따뜻한 고민 상담실 '나미야 잡화점'으로 오세요!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2012년 일본 중앙공론문예상 수

상작으로, 작가가 그동안 추구해온 인간 내면에 잠재한 선의에 대한 믿음이 작품 전반에 녹아 있다.

오래된 잡화점을 배경으로, 기묘한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설정을 통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채사장 지음/한빛비즈>



려 하지만 금방 지식에 한계가 오는 듯하다.

문득 자신의 부족한 지식수준을 채우기 위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절감하지만, 금세 막막해져 온다.

대체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알아야 하는 걸까?

여기, 신자유주의가 뭔지, 보수와 진보가 무엇인지, 왜 사회문제가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대화 자리가 두려운 당신을 위한 책이 출간되었다.

글쓰기와 강연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넓고 얇은 지식'을 알리고 있는 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으로, 인기에 연재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지대넓얏》을 책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힘 있는 지식인이 되기 위한 필수 기초 교양!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어제 본 드라마부터 시작되는 대화는 늘 같은 패턴이지만, 오늘따라 왜인지 시시한 기분이 든다.

곧 색다른 주제의 대화를 이어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55년 증보판)

<윤동주 지음/소와 다리>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및 한글 창작 혐의로 체포, 조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옥중에서 요절한 민족시인 청년 윤동주의 유고시집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시] [별 헤는 밤] [십자가] 등 주옥같은 시 31편이 수록된 초판본에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를 더해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1955년 발행된 증보판이다



15년 전문의무부서관 군장학생으로 선발

치위생과 전황욱, 정은철 최종선발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전황욱과 정은철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모집한 전문의무부서관에 지원하여 최종 선발되는 결과를 받았다.

전국에서 14명이 선발되었으며 이 중 2명이 본교 학생이 합격하였다.

선발된 군장학생은 장학금 수혜기간 2년과 의무복무 4년 총 6년으로 하며 의무복무 후 연장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하다.

전황욱 학생은 “학업과 부서관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 꿈

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교수님들의 응원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 합격을 받고 저보다 더 기뻐해주는 응원해주신 사람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이 꿈을 꾸는 후배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길 응원합니다.” 정은철 학생은 “합격 소식을 듣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걱정하면서 지원하였으나 합격은 걱정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제 자신이 부서관이라는 직업에 하루 빨리 적응하고 제 전공인 치위생으로 부서관을 복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희재 기자

고구려대, 외국인 유학생 현장체험학습 가져



▲고구려대학교는 27일 외국인 유학생 현장체험 학습을 가졌다.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 국제교류처와 어학원에서 4월 27일 전남 나주 천연염색문화관을 방문해 천연염색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 현장체험학습을 가졌다.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국제교류처, 어학원에서 주관한 이날 체험학습에는 국제교류처 김성진 처장, 김윤호 어학원장 및 외국인 유학생 담당교수들과 베트남, 중국 유학생 27명이 참여해 천

연염색 실습, VCR 시청, 천연염색 박물관 관람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국제교류처 김성진 처장은 “이번 나주천연염색문화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한국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문화체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구려대는 60여명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원생들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적 소양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수학과 있으며, 국제교류처와 어학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희재 기자

고구려대학교, 건강 환경가꾸기 '구슬땀'

시흥시 가정문화축제 참가 환경정리 봉사 활동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가 건강환경 조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고구려대학교 조용 입학처장, 염명자 겸임 교수 및 청소년복지상담학

과·아동노인복지학과 학생들은 지난 5일과 6일 시흥기벌공원에서 펼쳐진 '가정문화축제'에 참가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축제는 가정의 달 및 세계인의 날을 맞아 내·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흥시에서 실시한 것으로 세계음식체험, 전통혼례, 세계전통의상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이날 고구려대학교는 행사장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구려대학교 조용 입학처장은 “다문화가정의 인식개선을 위한 뜻 깊은 행사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따뜻한나눔을 실천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김순분 시흥시 가족여성과장은 “고구려대학교 등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석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가 될 수 있었다”며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준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상을 수여하겠다”고 말했다.

고구려대학교, 유학생 조기적응 걱정 '뚝'

고구려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체험행사 실시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가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송산유원지에서 외국인 유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유학생들은 이번 행사에서 양념갈비 등 한국 음식 만들기과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 다양한 민속 프로그램을 만끽하며 교육들과 친

목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유학생에게 한국문화를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유학생에게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고구려대학교 김성진 국제교류처장은 “유학생들이 낯선 한국생활로 인해 정서 및 문화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공감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구려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조기적응을 위하여 멘토링 제도 운영, 문화유적 탐방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교 / 수 / 동 / 정

사회복지상담과 박승희 교수

1. 2015. 11. 25. 14:30, 2015-12차 장애인 활동지원(나주, 영광, 함평)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관리공단.
2. 2015. 11. 27. 학회논문발표-REBT 집단상담을 적용한 원예활동이 결혼이주 여성의 자기표현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3. 2015. 12. 22. · 14:00, · 나주시 도시계획공동심의위원회, 위원. · 나주시의회 3층.
4. 2015. 12. · 23. 13:00, · 나주시기초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 심의위원회, 위원. 나주시청 총무국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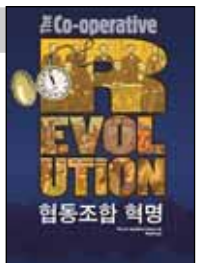
이동노인복지과 박지영교수

ICDPM 2016, Outstanding Paper 수상



사회복지과 박상하 교수

2016년 1월 5일 (주)시그마프레스 출판사에서 협동조합 혁명 번역서 출판



평생교육복지과 강철수 교수

- 2016.1.~3. 학술진흥재단 학술등재지 『커뮤니케이션 학보』24-1호 심사위원 위촉
- 2016.4.~6. 학술진흥재단 학술등재지 『커뮤니케이션 학보』24-2호 심사위원 위촉 등

동 / 문 / 탐 / 방

꿈을 먹고 꿈을 실현시키는 동문이 있다.



- 치위생과 2008학번 졸업생 유 진(29세)
 - CS프리랜서 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2016학년도 입학

“강사님은 꿈이 뭐예요?” 다수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로 컨설팅을 갈 때마다 듣는 질문이다. 나는 이 질문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말하고 싶다.

학창시절에는 좋아하는 것만 하는 고집쟁이 학생이었다.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나는 예체능으로 진학을 하고자, 느즈막히 미술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러나 현실의 문은 너무 높았고, 나에게서는 다빈치와 같은 천부적인 재능이 없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발등에 불은 떨어졌으니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후 노랑진과 독서실로 출퇴근을 하였다. 학교와 학원의 정해져있는 수업에 익숙해져 있던 나는 입시 때 큰 딜레마에 빠져 버렸다.

과연 나의 진로 선택이 맞는 것

일까? 잘해낼 수 있을까?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때 까지만 해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발 맞추기에 바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의 사회생활은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낮에는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무를 익히고, 저녁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론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병원에서 조무사 실무실습을 마치고 조무사를 취득하였다.

1년 후 산업체 전형으로 고구려대학교 치과위생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실무경험이 있어서 학과공부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할 수 있었다.

우리학교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편안하고 일괄적이지 않으시는 따뜻한 분들이셨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순간 이... 권위주의적인 교수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편안한 친구 같은 교수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에 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경력을 쌓기 위해 치과병원근무와 CS강의를 병행하였다.

나의 첫 대학 강의는 야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하는 특강이었다. 늦은 저녁에 공부를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강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겠다고 턱을 괴고 헤드뱅잉을 하며 인간함을 쓰는 학생들을 보며 나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업이 끝난 후 흐르르 달려와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며 90도로 꾸벅! 인사하는 모습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날 이후 마음이 조금해 졌다. 매일매일이 강의하는 날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찼다. 고민 끝에 치과위생사 경력을 잠시 접고 1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강의에만 매진해 보기로 했다.

프리랜서로 자리 잡기 위해 야카테미와 인재개발원에서 수도없이 시강을 하며 전문강의 프리랜서 면접을 보았다. 이부분이 이미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에서 무슨 강

사로 버렸는지를 되짚어 보면, 나는 나의 잠재력을 믿었던 것 같다. 강단에 서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교육생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감사했다.

나의 진실된 마음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을까 싶었는데 좋은 강의 평가로 나의 재능을 학생들로부터 증명 받을 수 있었다.

나에게 시간적 틈만 나면 포드론 세미나 수강을 하였고, 각종 수료증과 자격증을 취득하며 커리어를 쌓았고, 프리랜서로 전진 1년 후 학교와 기업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업교육을 하던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한 분이 찾아 오셨다. “강사님 혹시 방송 해보실래요?” 라고 하셨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순간 기뻐했다. 흔쾌히 승낙을 하였고, 방송을 하기 위해 아나운싱 연습을 했다.

역시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다. 5분짜리 영상을 위해 2시간 동안 하이힐 신발을 신고 서서 같은 멘트를 반복했다.

질타에도 굴하지 않고 카메라 불이 들어오면 미소를 지으며 정보전담에 집중하였다.

방송이 끝나고 제의하셨던 분에게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제게 방송 제의를 하셨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분은 “강사님께서서는 무엇을 하시던 열정적으로 임할 것 같았습니다.” 라고 답 해 주셨다. 열정적으로 강

의하는 모습이 한 사람에게 감동으로 전해졌고, 그것은 나에게 기회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강의를 하기 위해, 방송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마냥 어떤 기회를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

현재 나의 꿈은 ‘오늘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이다. 그게 곧 나의 미래인 것이다.

이제 나는 사랑하는 후배님들에게 말하고 싶다. ‘입으로 생각을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고 큰소리로 전달하고 싶다.

‘일어나지도 않은 변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라고 다시 한번 소리치고 싶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도전할 리스트를 작성하라. 물론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 또한 당신만의 스토리가 될 것이다.

꿈은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핑계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꿈은 꿈처럼 꾸어라!

(나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향하여 부족한 배움을 채워가기 위해서 2016-1학기에 중앙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상담심리공학을 공부하고 있다.)

사회봉사단 지속적인 봉사활동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 사회봉사단 학생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을 찾아가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구려대 재활복지스포츠학부 이은소의 30명의 학생들은 올초부터 주간보호시설,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무료급식소, 실버타운, 아파트 노인정 등 도움의 손길이 필

요한 시설들을 찾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미용봉사, 어르신들의 식사수발, 목욕도우미, 간병 등 생활지원과 무료급식소 배식준비 및 설거지 지원, 시설의 실내·외 청소 등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재활복지스포츠학부 박홍석 학과장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시설들을 찾아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구려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지난해 5월 15일에 발대식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과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 고구려대학교 사회봉사단 봉사활동 모습

5월 6일은 임시공휴일?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없던 공휴일도 임시로 휴무날짜로 바뀌게 되었다.

임시공휴일이 생기면서 5~8일 나흘간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늘

어나면서 국민들의 국내여행도 증가 뿐만 아니라 백화점매장의 매출 등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5개의

주요 유원시설 입장객은 37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약 63% 증가했다.

임시공휴일인 6일에는 약 114% 가 늘었고 4대 궁과 종묘도 약 42만여명이 입장해 2015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으며, 국립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은 각각 47%,

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1만9000원에 구매하는 특가 행사와 행사 기간 중 관광, 숙박, 음식, 놀이공원, 영화관, 유통업종에서 이용한 금액 합계가 2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선택형 추첨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도 이러한 직장인과 노동자들에게도 임시휴일로 인하여 가족들과의 시간, 휴식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지정되었으면 좋겠다.

/강수민 기자

졸 / 업 / 생 / 칼 / 럼

캠핑(Camping), 캠핑카(Camping Car)!

평생교육복지과 2014학번 조 정 임

■ 캠핑(Camping)이란.

텐트 또는 임시로 지은 초막 등에서 일시적인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이다. 야영 또는 노영이라고도 한다. 캠핑의 본래 의미는 '동지끼리 협동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자연 속에서 서로의 인격에 접촉하는 소박한 협동생활을 함으로써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또 등산, 수영, 낚시 기타 야외 활동을 통해 자연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신체를 단련하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캠핑카는 어떤 차인가?

장시간의 드라이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설비를 갖춘 자동차 또는 장시간의 여행을 하면서 조리와 숙박이 가능하도록 만든 자동차이다. 국토가 넓은 미국이나 육로로 이웃나라에 갈 수 있는 유럽에서는 차를 이용한 레저 여행이 성행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버스의 차내를 가옥과 같이 개조한 홈카나 승용차로 견인하는 트레일러 내부에 각종 설비를 한 하우스 트레일러, 트럭의 하대에 거실을 올려 놓은 캠핑 왜건 등이 있다.

가장 간단한 것은 2,3개의 침대와 부엌을 설치한 것이지만, 호화로운 것은 2DK(다이닝키친), 목욕실, 화장실이 붙어 있는 것도 있다. 마이크로버스나 라이트밴, 소형 트럭 등을 개조한 캠핑카도 있다.

캠핑카는 차량바디가 아닌 자동 충전되는 독립 전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전기기기를 쓸 수 있다. 태양전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맘대로 쓸 수 있다. 캠핑카 화장실 또한 아주 편

리하게 이용가능하다. 화장실 오수통은 여행중에 오수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여행중에 화장실 물펌프 우측의 알림 등에 빨간등이 켜지면, 고객님께서 한번쯤 비워주시기만 하면 된다. 오수통은 쉽게 통을 분리하여 가방처럼 들고 가서, 일반 화장실에서 누구나 쉽고 간단히 버릴 수 있다.

1. 캠핑카의 종류

'캠핑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종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표현이어서 정리가 필요하다. 캠핑 트레일러, 버스 캠핑카, 스타렉스캠핑카, 국산캠핑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형태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면, 자체 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 방식을 '모터홈' 형태, 자체동력은 보유하지 못하고, 자동차 뒤에 연결하여야만 이동이 가능하거나, 펜션처럼 이동은 하지 않지만 바퀴가 달려서 정차된 형태로 운영되는 '트레일러(캐러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 캠퍼 밴 : 소형트럭이나 미니밴, 화물트럭을 기초로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침실과 화장실, 주방을 갖춘 형태로 비교적 차체가 작아 무게가 가볍고 연료 효율이 좋은 편이며 운전이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 카라반 : '캠핑 트레일러'라고도 부르며 자체적인 동력없이 견인하는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이동식 주택을 의미하고 카라반 파크에 둔 뒤 낮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근거리 여행을 즐기고 밤에는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 폴딩형 트레일러 : 차량뒤로 트레일러를 견인해 끌고 다니는 형태로 캠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트레일러 안으로 접혀 있는데 트레일러를 펼치면 트레일러의 앞뒤와 위로 텐트가 나와 잠을 자거나 간단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2. 캠핑카대여자격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대여전문 '캠핑카'는 '면허기준으로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만 보유하고 있으면 운행이 가능하며, 보험 적용문제로 인해 만 26세 나이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다.

-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차량의 탑승허용인원을 확인하세요
- 2. 대여자 외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캠핑카 운전은 대여를 한 자만이 운전할 수 있다
- 3. 캠핑카들은 전부 오토매틱 차량이므로 2종보통 운전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단, 무게 750kg이상의 트레일러 등은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 4. 대부분 캠핑업체는 대여 전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한다. 이는 고객의 운전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차종에 따른 대여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여가 취소될 수 있다. 보험가입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 5. 대여하는 차량의 연식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세요
- 6. 차량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제공품을 확인하세요.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의 장단점!

평생교육복지과 2014학번 서 단 비

캠핑카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원하는 장소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 한 공간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베이스차량이 승합차(일부 구형은 트럭)라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단점: 차량크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런데 운전경력이 있을 경우, 조금만 운전하면 그리 부담스럽지도 않다. 차량이 큰 탓에 시내주차가 어렵다. 주차장 표지판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외곽이나 가까운 캠핑장에 주차해 놓고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가는 게 편하다. 승용차에 비해서 기동성이 떨어지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다. 지도를 보고(탐) 다니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문명의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다. PDA보다는 노트북에 네비게이션을 구성해서 간다면, 운전하면서 보기도 편하다. 따라서 노트북을 가져 갈 경우에는 인버터는 필수이다. 또한 디카로 찍은 사진들을 저장할 수도 있으며, USB를 이용하여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다. 구입가격이 비싸다

* 캠핑 트레일러 : 몸체(바디)를 만든 후, 차량 뒤에 매달고 다니는 구조를 말한다.

장점: 구입 가격이 캠핑카보다 저렴하다. 큰 트레일러의 경우, 설치된 시스템이 더 현실적이다.

생활공간이 넉넉하다-하드케이스로 제작된 트레일러

단점: 차량뒤에 매달고 가야하기 때문에 운전이 어렵다 - 특히, 주차와 후진 일부 트레일러는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트레일러 무게 750kg로 이상은 트레일러 면허증

이 있어야함). 트레일러를 이동하려면 개인차량에 부착하여 옮겨야하므로 번거움이 있다.

*캠핑트레일러의 종류

일반적으로 크게 폴딩형과 하드케이스형 있다.(하드케이스형도 일반형과 대형/트럭형 또는 확장형)

-폴딩형 트레일러 : 평소에 작은 크기와 모양으로 접혀있어서 일반 캠핑카는 하드형 트레일러보다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 2-4명의 인원이 이용하기 적당하며 공간의 구조 때문에 옵션에 따라 일부 구조/품목을 제거하기도한다(샤워, 화장실, 에어컨 등).

-하드케이스형 트레일러 : 3-5인용의 중간크기의 트레일러도 있으나, 대부분.. 캠핑카나 폴딩형 보다, 넓은 크기로 생활공간이 넓으며 옵션이나 설치 품목들이 다양하고 설치 가능하다. 크기에 따라 5-9명의 인원이 이용 가능하다.

*폴딩형 트레일러와 하드케이스 트레일러의 구분

-폴딩형 트레일러 : 가장 큰 장점은 주차공간의 유용함입니다. 적은 부피와 크기이므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야하는 분들이나, 이용하실 가족구성원이 적은 인원.

점점 늘어나는 캠핑용품 보관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트레일러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하드케이스형 트레일러 : 생활공간이 넓고, 다양한 옵션품목이 설치되어 있다. 주차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며, 트레일러 면허증을 갖고 있고 트레일러를 이동하며 사용함은 물론 특히 캠핑장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원 / 고 / 모 / 집

여러분의 글, 학우들의 재밌고 감동적인 글을 기다립니다. 자유로운 글로 누구나 웃고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모집합니다.

주제 : 자유 글(시, 감상문, 수필, 논설문 등)

전화 | 061-330-7431
E-mail : cskang@kgrc.ac.kr

기사제보 및 원고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본관 409호실 고구려대학교신문사



고구려대학교, 우수 인력양성 '박차'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와 인재양성산학협력 체결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가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이사장 이창엽, 농업회사법인 해인)와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 취업과 공동연구, 기술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23일 고구려대학교 회의실에서 고구려대학교 김형배 총장과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 이창엽 이사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수 및 학생의 현장 참여를 통해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는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산업체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인력은 채용을 연계하기로 하여 학생 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실현·실습실 기자재 활용 지원, 학술강연 및 워크숍 개최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형배 총장은 "이번 협약이 우수한 산학협력의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체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교육의 학과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졸 / 업 / 생 / 소 / 식

미국 치과위생사 취득 - 치위생과 2007학번 졸업생 최 다 슝

미국 보스톤의 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s. 대학 치위생과에서 공부

소외계층을 위한 선진 치과위생시술을 펼치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고구려대학을 2010년도에 졸업한 07학번 치위생과 최다스입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해도 꿈이 없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대학을 가니까 저 또한 진학은 하고 싶었지만 어느 곳으로 갈지 고민하던 중 부모님의 권유로 치위생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학년때는 익숙하지 않은 공부를 하려고 하니 어려움도 많았지만 1학년 첫 학기 이후로 치과의원에서 실습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배운 치과위생학의 이론을 토대로 환자의 구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매력을 발견하게 된 후 학과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과탐도 아니었고, 전 과목 성적이 평균 B인 평범한 학생이였지만, 학점에 관계없이 한번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나니 치과위생학에 대한 매력을 찾은 것 같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에는 서울시의 사회에서 주최하던 의료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치과에서 만났던 환자보다 치과에 갈 형편이 안되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일반의료 진료에 비해 치과 쪽은 시설과 지원인력이 월등히 부족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봉사의 경험이 제가 어떤 방향으로 더 공부를 해야 할지 시각을 더 넓혀 주었고, 학교에서 배웠던 공중구강보건학과 지역사회구강보건학, 의료관계법규를 통해 어떠한 시스템으로 더 많은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구강증진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치과의원에 취업하여 치과위생사로서 근무를 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소외계층을 향한 저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지가 막연하기도 해서 대학원에 편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편입을 알아보던 중 서울 소재

에 있는 학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영어실력도 월등히 좋아야 했기 때문에 처음엔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목적으로 제가 번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학연수를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9월쯤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가기전에도 근무를 하면서 틈틈히 영어공부를 해왔지만 막상 가족 친척 친구 한명 없는 낯선땅에 도착하니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만난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을 통해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영어 어학연수를 하던 중에 미국의 대학교로 편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공부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학연수 1년, 그리고 대학교 수업을 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프로그램 10개월 정도 다니고 토플을 준비하고 나서 미국 보스톤 소재의 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s라는 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공중구강보건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처음엔 Public Health(공중보건학)과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던 중 미국 치위생학과 공중구강보건시스템에 더 관심이 생겨서 Dental Hygiene으로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교는 학점인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한국의 대학교 학점인정을 잘 해주지 않아서 1학년 과정부터 다시 들어야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교과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Dental Hygiene 1학년 때는 Basic Chemistry(기초화학), Anatomy and Physiology(해부생리학), 그리고 College writing(대학작문) 같은 교양과목 수업을 들으며 보건학의 전반적인 기초를 다집니다.

2~3학년때는 전공수업을 들으며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Dental Clinic Center에서 환자를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경제적인 수입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천 합니다.

또한 보스톤에 있는 치과대학병

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Student Hygienist(인턴치과위생사)로 환자를 받으며 로테이션을 하게 되고, 또 치위생학 연구분야와 연구방법에 대해 배우고 많은 전공분야 논문들을 읽으며 학기 말에는 그룹 프레젠테이션도 하게 됩니다.

또, 학교 Clinic Center에서 본인이 직접 본 환자들 중 중증치주질환(혹은 이상)환자에 대해 Case Study를 하고 직접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동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학기때에는 그때까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 할 수있는지 교수님과 함께 찾아 본 후, 직접 사회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참여한 모든 결과를 상호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3년과정이고 여름학기는 필수로 들어야 했고 모든 과목을 C 이상 받지 못하면 유급을 해야 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내 1년에 방학이 2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향수병도 겪어야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들도 여러번 들었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기도와 인내로 이겨내고 2016년 5월 7일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이후에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미국치과위생사 면허증을 따려면 총 5개의 국가/지역 시험을 봐야 합니다.

환자를 직접 찾아서 치주낭 측정과 치은연하 치석탐지, 그리고 Scaling and root planing 평가시험, Local Anesthesia (구강마취시험, 미국은 치과위생사가 직접 마취를 할 수 있습니다).

CSCE(Computer-simulated clinical examination, 환자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X-ray와 구강병리학 요소를 통한 치주진단 시험), National Board(미국 국가고시), 그리고 Jurisprudence (의료관계법규를 모두 통과해야 면허증이 나옵니다).

모든 시험은 75점 이상 받으면 패스이고 그 이하로는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은 국가고시 합격 후 뉴욕이나 뉴저지 소재에

있는 치과병원에 취직해서 미국의 치과시스템에 대한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더 자세히 이해 한 후 대학원에 진학 할 예정입니다.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마음은 여전하기 때문에 공중구강보건학 쪽으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진학을 하게 될지 미국에 계속 있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제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써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선진국에서 배운 모든 경험들과 지식들을 한국 사회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돕고 싶은 마음과, 또 한국 치위생과 후배들에게 구강보건학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으로 꼭 돌아가고 싶습니다.

후배님들, 졸업 전 혹은 후에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과위생사가 되고 싶고, 또 가지고 있는 기술로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런 생각을 실행한 사람은 우리 치과위생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들을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 Health Care Professional(건강관리전문가)로서의 의미 있는 실천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꿈들이 졸업과 동시에 발현되어 우리 고구려대학교와 한국치과위생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월 9일 미국 동부지역 보스톤에서...

